

자사업 강화·사업 다각화... 치킨 프랜차이즈, 마케팅 사활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 부담 커져 브랜드별 포장할인·쿠폰지급 등 이벤트 앞세워 자사업 이용 유도
수제맥주·막거리 판매, 외연 넓히고 태국·미국 진출 등 글로벌 진출도



교촌치킨이 자사업을 통해 3월 'KING 클럽 보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왼쪽), 교촌치킨 모델 배우 변우석. /교촌에프앤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가맹점주들과의 차액 가맹금 소송, 고물가 등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 다각화와 자사업 중심 마케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교촌치킨, bhc치킨, BBQ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배달업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업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 브랜드는 포장 할인, 멤버십 등급제, 신메뉴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앞세워 자사업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소비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포장 주문 건에 대해서

도 중개수수료 적용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교촌치킨은 자사업 멤버십을 세분화해 포장 주문 시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정기 이용자에게는 제품 증정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고 있다. bhc치킨은 지난달 자사업에 회원제를 도입하고, 등급별 쿠폰과 스포츠 경기 사전예약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BBQ

는 신메뉴 할인, 금요일 특가 이벤트, 황금알 치즈볼 증정 등 공격적인 자사업 프로모션을 이어가며 충성 고객 확대에 나섰다.

이러한 자사업 중심 전략은 가맹점 수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BBQ의 자사업 회원 수는 2020년 30만명에서 지난해 400만명으로 급증했고, 교촌치킨 앱 주문 비중도 13%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자사업 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소비자 인식 한계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보통 본사와 가맹점이 이벤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할인 경쟁이 지속될 경우 가맹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자사업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는 배달업의 구독제를 통해 무료 배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사업의 매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사업 마케팅이 곧장 수익 증대로 이어지진 어렵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기존 치킨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신사업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종이포장재 제조회사 ‘케이앤엘팩’을 통해 친환경 패키징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제맥주 ‘문베어’, 프리미엄 막걸리, 아마존 K-소스 판매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bhc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를 포

함한 외식 브랜드 운영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태국·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BBQ는 일식주점 ‘토리메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피터펫’ 등으로 외식·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진입했으며,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BBQ는 국내 2100여개, 해외 약 700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처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꾀하는 배경에는 배달업 수수료 부담, 내수 시장 포화 등 기존 치킨 사업의 리스크를 상쇄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치킨 3사 모두 가맹점주와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있는 만큼,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는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된 국내 치킨 시장에서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본사들은 브랜드 외연 확대와 자사업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을 병행하며 다층적인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영화관에서 켈리 마시며 프로야구 즐겨요”

하이트진로 켈리-CGV 협업 주요 60여개 극장서 켈리세트 판매



켈리 세트 메뉴. /하이트진로

국내 최대 종합주류회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만났다.

하이트진로는 2025 KBO(한국 프로야구) 리그 개막을 맞아 더블 임팩트라거 ‘켈리(Kelly)’와 CGV가 협업을 진행한다고 24일 전했다. 극장을 찾는 국내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CGV는 최근 2025~2026시즌 KBO 리그 경기를 극장 단독 생중계 및 프로모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맞춰 극장 야구 중계만의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켈리를 즐길 수 있는 KBO리그 극장 생중계 특화 상품을 기획했다.

하이트진로는 CGV와 연계하여 전국 CGV 주요 60여개 극장 내 켈리 세트

메뉴를 판매한다. 세트 메뉴는 야구장 콘셉트의 패키지가 적용된 1인 메뉴, 2인 메뉴로 구성되며 취식 편리성과 재미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 또한 CGV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극장인 CGV인천에 셀프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켈리 브랜드존을 운영한다. 특히 야구 특화 상영관으로 새롭게 선보인 CGV인천 SC REENX관에는 실제 야구장을 떠올리게 하는 켈리 브랜드가 적용된 좌석으

로 구성해 현장감을 살렸다. SCREEN X관은 세계 최초로 좌, 우 벽면까지 스크린이 3면으로 확장된 상영관이다.

켈리 세트 메뉴 등 KBO리그 극장 생중계 특화 상품은 개막에 맞춰 지난 20일부터 판매 중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2025 KBO리그 개막을 기념해 야구팬들이 극장에서 켈리를 즐길 수 있도록 CGV와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24년부터 전국 CGV 극장 내 켈리를 런칭해 맥주 세트 판매 및 SNS 콘텐츠를 운영하며 영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N서울타워, 29·30일 ‘봄 남산 와인페어’

12개 수입사서 100여종 시음 행사

운 행사를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봄을 맞아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2025 봄 남산 와인페어’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N서울타워는 매년 봄마다 ‘블러썸 타워(Blossom Tower)’를 콘셉트로 벚꽃 페스티벌을 개최해왔다. 올해도 싱그러운 봄 햇살이 가득한 핑크빛 남산에서 벚꽃과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

이번 와인페어는 오는 3월 29일, 30일 주말 양일간 N서울타워 광장에서 진행된다. 12개 와인 수입사가 준비한 100여종의 다양한 유명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으며, 200여종의 와인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와인장터도 운영된다.

와인페어 입장권 구매 시 와인 시음을 위한 리틀 와인 글라스와 칠링백, 푸드 이용권 2매가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힐라홀딩스, 3년간 최대 5000억 주주환원

기업설명회서 새 환원정책 발표

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이어온 적극적인 주주환원 기조를 바탕으로,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힐라홀딩스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5000억원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2000억원을 추가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년간 주주환원 규모는 최대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힐라홀딩스는 지난 21일 열린 기업설

앞서 힐라홀딩스는 지난 2022년, 오는 2026년까지 최대 6000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연결지배주주순이익 대비 환원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50주년 특별展

내달 30일 개막...작가 5인 참여

가나의 헤리티지를 돌아보고, 초콜릿을 문화로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섯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그라플렉스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 ▲박선기 ▲김선우 등 각기 다른 예술성을 지닌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초콜릿의 가치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외에도 가나 초콜릿의 역사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지난 50년간 국민의 곁에서 행복한 순간을 함께한 가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지그재그 봄 신상 95% ‘직책팻’

카카오택시 운영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내달 7일까지 15일간 봄 신상품 및 인기 상품을 최대 9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직책팻’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책팻은 지그재그가 매 시즌 진행해 온 대규모 전자 할인 행사 ‘직책세일’을 리브랜딩한 것으로, 지그재그와 ‘직책팻’을 결합해 만든 명칭이다. 기존 직책세일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보다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약 400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컬리, 봄 맛이 콘셉트 ‘원더컬리’ 행사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이달 31일까지 신규 할인 행사 ‘원더컬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원더컬리는 컬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 맞춤형 월 정기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3월을 맞아 봄맞이 콘셉트로 진행된다.

컬리에 따르면, 이번 신규 행사에는

인기 상품 특가 혜택인 ‘원더픽’을 포함해 100% 당첨 쿠폰, 최대 77% 할인 등 혜택을 강화했다.

원더픽은 고객별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큐레이션 특가 혜택이다. 구매 주기 등에 따라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 준다.

/안재선 기자